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4. 1 (수)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1530원 넘은 환율, 금융위기 이후 최고…은행 건전성 관리 '비상'

뉴스1 https://zrr.kr/u0eFFR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달러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1530원을 돌파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급격한 원화 약세에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주요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체계 점검

기업銀·농협·수협, 지방 이전 본격화…금융권 파업 가능성↑

디지털데일리 https://zrr.kr/WA7IXl

기업은행을 비롯한 일부 금융사의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
이에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등 거론된 금융사들은 이전이 확실시된다면 개별 노조 차원에서의 총파업 가능성 또한 거론

OK금융, JB 이어 BNK 이사회 합류…종합금융 진출 노린 포석일까

블로터 https://zrr.kr/VeweQe

OK금융그룹이 지방 금융지주 이사회에 잇따라 입성... '단순 투자'의 목적을 넘어 1금융권 금융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것
OK금융의 염원으로 꼽히는 '종합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경영 노하우를 쌓는 동시에 대형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키우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

토스뱅크, 1000억 순익 고지 눈앞… 2년 연속 흑자에 건전성도 양호

블로터 https://zrr.kr/cdyCMT

토스뱅크의 2025년 당기순이익은 968억원으로, 2024년 457억원과 비교해 111.8% 증가한 수치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수신 잔액이 30조원을 넘어선 데다 보증부 대출과 전월세보증금대출 비중을 키우며 여신 구조도 다변화

"1000조 증발, 잔인한 3월"…변동성에 우는 코스피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TjEqeU

코스피가 새해 들어 2월 말까지 신기록을 썼지만, 중동 전쟁 발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면서 한 달 만에 시가총액이 1000조원 가까이 증발
특히 국내 증시를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 감소분은 473조8646억원으로, 전체의 48%를 차지

IB명가 재건 신호탄 … NH證, 주식·채권발행 1위 석권

매일경제 https://zrr.kr/M2cQcZ

NH투자증권이 올해 1분기 DCM에서 10조원이 넘는 주관 실적을 쌓았으며, 대형 IPO가 실종된 침체기 속에서도 ECM에서 리그테이블 1위 탈환하는 데 성공
케이뱅크와 덕양에너젠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 회사채 시장은 중동 분쟁발 금리 불안으로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총 10조1988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대표 주관

금감원 경고에도 '1인실 입원일당' 또 과열…동양생명 70만원까지

대한금융신문 https://zrr.kr/jzBjdf

금융감독원이 올해 고액 보장한도에 대한 감독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일부 보험사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을 과도한 수준으로 높여 판매
겉으로는 4월 상품 개정을 앞둔 한정 판매처럼 안내하면서도, 실제로는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가입을 재촉하는 절판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

보험사, 올해 국고채 6.3조 투자…금리 안정 뒷받침

서울경제 https://zrr.kr/CuHySx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국고채를 적극 매수하면서 소방수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분석
자금을 장기로 운용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채권 비중을 늘려 평균 수익률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제고하는 효과를 동시에 내고 있는 셈

2년새 25조→87조…코인 투자자들 "해외로"

비즈워치 https://zrr.kr/Bz6wKR

지난해 하반기 동안 해외 거래소로 빠져 나간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은 87조3000억원으로 2023년 하반기 25조3000억원 대비 62조원 증가
제도화 지연으로 다양한 거래 주체의 참여와 상품 거래가 막히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등을 통해 자산을 해외거래소로 옮기는 투자자들이 급증

두나무 "지분구조 계획 수정 없다, 합병완료 즉시 IPO 추진"

머니투데이 https://zrr.kr/qLBq4L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네이버그룹에 편입된 뒤 IPO를 추진한다는 기존 계획을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확인
입법이 진행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M&A에 대한 주주단의 반응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며, 전날 공시된 대로 합병일정은 3개월 연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